

한국 불교 진언과 대순진리회 주문의 비교 연구

박인규

대순진리회 교무부·연구위원

- I. 서론
- II. 한국에서의 불교 진언의 전개와 그 수행
- III. 대순진리회 주문의 형성과정과 그 수행
- IV. 한국 불교 진언과 대순진리회 주문의 비교
- V. 결론

I. 서론

종교학자 조나단 스미스는 비교는 인간의 지성적인 작용이며 비교에 의해 나타난 유사와 차이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신 활동의 산물이라고 하였다.¹⁾ 이런 그의 주장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종교의 비교 연구가 쇠퇴한 것에 대한 반격인 것이다. 그는 종교의 비교 연구의 유용성을 주장하며 기존의 비교 연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좀 더 나은 수준의 세련된 비교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²⁾ 그는 비교의 목

1) Jonathan Z. Smith, *Drudgery Divine: On the Comparisons of Early Christianities and the Religions of Late Antiqu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pp.50-53.

2) 관련 내용은 Jonathan Z. Smith, "Prologue: In Comparison a Magic Dwells", in Kimberly C. Patton and Benjamin C. Ray(eds.), *A Magic Still Dwells: Comparative*

적이 비교 그 자체이면 안 된다고 하였으며, 계를 계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갑각류의 일종으로 보는 등의 분류와 목록화에 의한 관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³⁾

이 글에서는 이런 비교 연구라는 측면에서 대순진리회의 주문을 한국불교의 진언과 견주어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불교의 진언과 관련해서는 불교 의례 연구에 의해 많이 접근되었으며 밀교 연구자들에 의해 그 상징과 의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반면, 대순진리회의 주문과 관련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순진리회 내부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한다면 주문이 대순진리회만의 독특한 종교적 양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을 알기가 어렵다. 이런 점에서 불교 진언과의 비교를 통해 대순진리회 주문의 특성이 좀 더 부각되어 대순진리회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불교의 진언과 대순진리회의 주문이 모두 한글 발음을 발성한다는 점에서 외양적인 형태는 유사해보이지만, 비교를 통해서 진언과 주문을 둘러싼 종교적·역사적 맥락의 차이를 드러내 보일 수 있다. 글의 구성은 먼저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각각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기술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의 비교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에서의 불교 진언의 전개와 그 수행

1. 불교 진언다라니의 역사적 전개

Religion in the Postmodern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pp.23-41. 참조.

3) Jonathan Z. Smith, *Relating Religion: Essays in the Study of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p.174.

우리나라에 진언다라니(眞言陀羅尼)가 전래되고 유포된 것은 밀교(密敎)의 도입과 확산 과정과 맞물려있다. 밀교라 함은 현교(顯敎)에 상대되는 말로 법신불(法身佛)인 대일여래(大日如來)가 깨달은 내용을 스스로 비추어 보면서 수행하는 신밀(身密)⁴⁾·구밀(口密)·의밀(意密)삼밀(三密)의 가르침을 일컫는다.⁵⁾ 이 밀교는 다라니(陀羅尼)의 신비력을 이용하여 즉신성불(卽身成佛)을 목적으로 한다. 곧 다라니를 염송하고 닦으면 양재초복(攘災招福)의 세간적(世間的)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출세간적(出世間的)인 성취(成就)인 성불(成佛)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중심사상이다. 그러므로 진언다라니는 밀교 사상을 떠받치는 핵심인 것이다.⁶⁾

불교 경전에서 볼 수 있는 진언은 범어(梵語)인 ‘만트라(mantra)’의 의역(意譯)이다. 만트라는 ‘신성한 의미’를 뜻하는 ‘man’과 그것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의 ‘tra’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만트라에는 ‘신성한 언어’, ‘진리의 말’ 또는 ‘진리에 대해 사유한다’는 뜻이 있다.⁷⁾ 불경에서 만트라는 진언, 주문(呪), 신주(神呪)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다라니는 범어인 ‘dharani’를 음역(音譯)한 것으로 의역하여 ‘총지(總持)’라고 하며 ‘능지(能持)’, ‘능차(能遮)’, ‘집지(執持)’라고도 한다. 총지, 능지 또는 집지의 의미는 불법을 기억하여 잊지 않는다는 뜻이며 능차는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⁸⁾ 또는 다라니가 ‘Dhr’에서 나온 말로 ‘Dharma’와 같은 어원을 갖는다고 보기도 한다. 즉 ‘Dharma’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라니(dharani)이며, 다라니는 법(法, Dharma)이 가진 모든 공능을 하나도 빠짐없이 간직하고 있어 총지(能持)라고 한다.⁹⁾ 진언과 다라니의 구별에 있어

4) 밀교에서는 일체의 모든 것을 불(佛)로 보기 때문에 증생의 상징어인 업 대신 불(佛)의 상징어인 밀(密)을 사용한다.

5) 정태혁, 『정통밀교』 (서울: 경서원, 1983), p.21.

6) 종석, 『밀교학 개론』 (서울: 운주사, 2000), p.52.

7) Tsong Ka Pa, *Tantra In Tibet*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77), pp.60-66.

8)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진언·다라니 수행 입문』 (서울: 조계종출판사, 2008), p.21.

9) 종석, 앞의 책, p.21.

서 비교적 긴 것을 다라니, 짧은 것을 진언, 더 짧은 것을 주(呪)라고 하기도 하지만 각각 그 구분이 모호하여 통상 진언이라고 한다. 주(呪)나 진언, 다라니 모두 세간적 차원의 효력과 출세간적인 공능을 동시에 담고 있어 서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불교 교단이 형성된 후, 원래 부처는 제자들에게 주문 또는 주문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부처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태도로 진리에 접근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근본 자성(自性)을 버리고 외부적인 신의 힘에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아함경』과 유부(有部)의 율장의 여러 곳에는 주문에 대한 금지와 경계의 가르침을 찾아 볼 수 있다.¹⁰⁾ 하지만 부처는 독을 치료하고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선주(善呪, Parrita)는 허용하였다.¹¹⁾ 이런 선주의 허용이 점차 적극화되고 선주의 수도 늘어나면서 경·율·론의 삼장 외에 선주만을 모은 명주장(明呪藏)이 만들어지게 되었다.¹²⁾ 부파불교의 개론서라고 일컬어지는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에서도 주문이 교학으로서 공인되었다.¹³⁾

대승불교에서도 『법화경』, 『열반경』, 『입능가경』, 『금광명경』 등에서 다라니가 설해지고 있다. 경전의 암기와 기억을 통해 구전되었던 초기 『아함경』과 달리 대승경전은 그 양이 방대한 규모로 확대되었다. 장문의 경전은 계송의 형태로 경전의 끝부분에 요약되었으며 경전 본문의 문장을 축약하여 다수의 어구로 함축되었다. 다라니는 경전의 내용을 짧은 구절을 통해 효과적으로 암기하던 수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승경전 초기 『반야경전』에 등장하는 다라니는 주로 마음을 집중하고 암기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후대가 되면서 다라니는 재난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용수(龍樹)에 이르러 부처가 설한 진리는 반야바라밀다와 동등한 것을 여겨졌으며 반야바라

10) 관련 구절은 『중아함경』, 대정장 권1, p.724a, p.469, p.769; 『장아함경』, 대정장 권1, p.84b, p.89c; 『사분율』, 대정장 권22, p.754a-b.

11) 『십송률』, 대정장 권23, p.337c.

12) 『잡아함경』, 대정장 권2, p.61a.

13) 정태혁, 앞의 글, p.34, 재인용.

밀과 다라니를 동일하게 보아 다라니의 지송 수행이 보살의 수행 덕목으로 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다라니는 양재초복이라는 주술적 의미에 출세간적 깨달음이라는 의미가 부가가 된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승불교에서 다라니는 제액(除厄)의 수단¹⁴⁾이자, 정신통일[삼매]의 수단¹⁵⁾이고, 경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수단¹⁶⁾이며, 진리인 반야 바라밀다를 상징하는 말¹⁷⁾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신비스런 다라니의 주력을 중심으로 4세기~6세기에 인도에서 초기밀교가 발생하였고 7세기~8세기 중반에는 『대일경』과 『금강정경』을 중심으로 체계를 갖춘 밀교가 성립된다. 인도에서 발전한 밀교가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중국에 전해졌다. 우리나라가 진언다라니와 밀교사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여러 신라의 구법승들이 밀교 경전과 의궤서 등에 의한 차원 높은 진언 수행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바로 『삼국유사』 권5의 제6장 신주(神呪)편에 명랑(明郎)과 혜통(惠通)에 관한 기사이다. 특히 혜통은 신문왕의 등창과 효소왕 공주의 병을 진언을 외어 낫게 하였다.¹⁸⁾ 혜통에 의해 종파 성립의 기초가 마련된 총지종(總持宗)은 경전과 다라니의 지송과 사경, 그리고 기타 밀교의식을 통해 국가를 보호하거나 재앙을 없애고 치병을 하는 밀교종파이다.¹⁹⁾

고려 시대는 한국불교사에서 진언신앙을 위시한 밀교가 가장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시기였다. 고려 태조 왕건은 광학(廣學)과 대연(大緣)이라는 두 밀교승에게 감화를 받았으며 936년에 현성사(現聖寺)를 지어 신인종(神印宗)을 개종하도록 하였다. 그 뒤 여러 고려 왕들도 밀교 전적을 간행하며 밀교적 즉위인 관정즉위(灌頂即位)를 하였다. 『고려대장경』에도 많은 밀교의 경전이 입장(入藏)되었는데 특히 충숙왕

14) 『대반열반경』, 대장장 권12, p.370a.

15) 『대승장엄경론』, 대장장 권31, p.645a

16) 『화적다라니신주경』, 대장장 권21, p.875a.

17) 『반야심경』

18) 『삼국유사』 권5 神呪6 惠通降龍條.

19)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 (서울: 운주사, 2006), p.20.

15년(1328)에는 밀교대장경(密敎大藏經) 130권이 금서(金書)로 간행되었다. 종파에 있어서도 고려의 신인종은 조선 초까지 지속되었고, 다라니에 대한 관심과 신앙이 깊어서 왕실에 주문을 지송하며 치병을 담당하는 주력승(呪力僧)인 주금사(呪嚧師)가 있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각종의 밀교의례를 설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적을 물리치는 세간적 성취와 반야바라밀을 증득하려는 출세간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였다.²⁰⁾

조선시대에는 승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대규모 불교 탄압이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에 성행하였던 신인종, 총지종의 밀교 종파는 소멸되었으며 밀교 관련 의례나 경전 또한 상당 부분 소실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억압을 받았지만 왕실에 의해 많은 불교 문헌이 출간되었다. 그 대부분은 왕실의 안녕, 양재초복, 장수(長壽)를 기리는 것과 관련된 밀교 경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밀교 경전 46부 172회, 밀교 의례문집 24부 109회 등 모두 70부의 밀교 경전과 진언다라니 문집이 281회 걸쳐 간행되었다.²¹⁾ 특이할 사항은 조선전기에는 교학 상 중요한 대승의 경·율·논 삼장이 주로 간행되었으나, 조선후기에는 다라니경·진언집·불교 의식집 등의 불서 간행의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²²⁾ 주된 전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1485년 간행된 『오대진언집(五大眞言集)』과 1784년 간행된 『비밀교(秘密敎)』이다. 『오대진언집』은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대비심다라니(大悲心陀羅尼)’, ‘수구즉득다라니(隨求卽得陀羅尼)’, ‘천수천안근본다라니(千手千眼根本陀羅尼)’의 오대진언을 묶은 것이며, 『비밀교』는 천수다라니를 포함한 다수의 진언을 함께 묶은 것이다. 그리고 1935년에 간행된 『석문의범(釋門儀範)』은 안진호(安震湖)가 편찬한 종합 불교의례서로 일상 의례에서 상용하는 여러 주문을 포함해 모두 117개의 다라니를 기술하고 있어 한국불교 역사에 남아있는 다라니의 활용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 같은 책, pp.39-58.

21)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앞의 책, p.127.

22) 남희숙, 「조선후기 불서간행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p.160.

현재 한국에는 많은 불교 종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 중 밀교에 속하는 종단으로는 진각종(眞覺宗), 총지종(總持宗) 등이 있다. 이 중 진각종은 한국을 대표하는 4대 종단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²³⁾ 이 밀교 종단들의 등장으로 진언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불교인들에게 진언 수행이 최상의 수행법임을 전파하고 있다. 밀교계 종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타의 모든 종단에서 송주(誦呪)가 다른 수행과 병행해서 행해지고 있으며, 승원의 생활이 모두 진언으로 성화(聖化)되고, 각종 불사가 거의 진언을 결들인 밀교적인 의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불교 전통에서 주문 염송은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하나의 의례전통이자 수행전통인 것이다.

2. 주요 진언다라니의 의미와 그 수행

1) 육자대명왕진언

부처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念佛)과 함께 진언을 외우는 염송(念誦)은 한국불교신앙의 주요한 모습이다. 진언 가운데에서도 ‘옴마니반메훔’이라는 여섯 자로 구성된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과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는 모두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진언다라니이며 『육자대명왕경(六字大明王經)』²⁴⁾과 『천수경』 같은 경전이 우리나라에서 찬술되어 편찬되기도 하였다.²⁵⁾ 이 경전 중에서 『육자대명왕경』은 내용의 일부가 근세에 들어서 한국불교 4대 종단 중 하나인 진각종에서 수행법화 되었고²⁶⁾, 『천수경』은 제 종단에서 현재 독송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23) 차차식,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불교계 종단의 분파활동과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8 (2012), p.2.

24) 이 외에도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관세음육자대대명왕선주경』 등의 여러 경전이 있다. 이 경전들이 우리나라의 육자진언 수행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 수행의 경전적 근거는 대체로 10세기 경에 한역된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이라 보고 있다.

25) 허일범, 「한국의 진언·다라니 신앙 연구—육자진언과 천수다라니를 중심으로」, 『회당학보』 6 (2001), pp.53-54.

먼저 육자진언의 수행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우리나라 밀교 종단인 진각종, 총지종 등에서는 주된 수행으로 육자진언 염송과 육자관(六字觀)²⁷⁾을 채택하고 있다. 육자진언인 ‘옴마니반메훬’은 ‘옴, 연꽃 속의 보석이여’라는 의미라고 하지만, 이러한 언어적인 의미나 해석보다는 그 글자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중시한다. 밀교경전 외에도 여러 경전에서 진언에 담긴 고도의 상징에 대해서 설명하며 진언을 암송할 때 무수한 공덕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육자대명왕경』에도 육자진언에 대한 독송법과 관법(觀法)을 밝히며 그 공덕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육자진언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종자화(種子化)²⁸⁾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식물의 씨앗처럼 많은 상징과 공덕이 그 글자에 스며있음을 말한다. 육자진언은 이처럼 종자화 되어있기 때문에 진언을 독송하면서 그 글자를 마음으로 관(觀)해야 한다. 즉 그 종자 문자를 씨앗처럼 자신의 몸에 안치하고²⁹⁾ 이를 진언독성으로 육성을 시키면 자신의 몸 속에서 진언다라니의 공덕이 일어나고 자신의 몸을 불보살처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³⁰⁾

그리고 이 여섯 글자는 각각 부처와 대응이 되는데 ‘옴’은 비로자나불, ‘마’는 아축불(비로자나불의 영원한 생명성), ‘니’는 보생불(비로자나불의 특수한 가치성), ‘반’은 아미타불(비로자나불의 자애성), ‘메’는 불공성취불(비로자나불의 창조활동성), ‘훬’은 금강살타(삼매를 실감하고 있는 중생)라고 한다.³¹⁾ 이 여섯 글자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옴’자와 ‘훬’자가 지닌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 위덕대학교 교수

26) 진각종 교리의 형성과 육자진언 수행에 대한 연구로 “이경택, 『진각종 교학의 형성과정 연구』 (위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pp.37-128” 참조.

27) 육자진언 그 자체에 다섯 부처가 존재함을 마음속으로 바라보는 관상법.

28) 진언과 다라니에는 한 음절이나 두 음절로 이루어진 짧은 형태도 존재하는데 이것을 종자라고 한다. 불교의 장신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실답자인 옴(Om)자도 이런 종자에서 기인한다.

29) ‘옴’은 비로자나불로 수행자의 비장인 배꼽에, ‘마’는 아축불로 간장인 왼쪽 옆구리에, ‘니’는 보생불로 심장인 명치에, ‘반’은 아미타불로 폐장인 오른쪽 옆구리에, ‘메’는 불공성취불로 신장인 허단에, ‘훬’은 집금강보살로 인후인 목젖에 각각 안치하고 부처와 수행자가 하나라고 관한다.

30) 허일범, 앞의 논문, pp.60-61.

31) 김무생, 『회당사상과 진각밀교』 (경주: 위덕대학교 출판부, 2002), pp.22-23.

김무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옴은 모든 존재를 머금고 있는 무한한 법계의 원리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옴은 … 우주의 법칙, 생명력, 창조력, 지혜 등의 전체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 옴과 흠은 하나의 정형화된 형식으로 진언의 앞과 뒤에 위치한다. 옴이 우주 법계를 전체적으로 상징한다면, 흠은 개별상이 가지고 있는 우주적 원리를 상징한다. … 옴을 태양에 비유하면 흠은 그 태양빛을 받아들이는 땅에 비유된다. 결국 옴이 우주의 생명력 그 자체라면, 흠은 개별적 존재 속에 활동하는 우주적 생명력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옴이 우주를 향해 상승하는 것이고, 흠은 인간의 마음을 향해 하강하는 원리이다. … 이러한 관계를 진언의 입장에서 살펴 보면, 옴은 진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다 머금고 있는 것이고, 흠은 진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상징하게 된다.³²⁾

이처럼 경전의 내용을 기초로 불교교학에서는 육자진언의 의미를 성스럽게 하는 담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며, 그것이 진각종이라는 한 종단의 교리형성의 핵심축이 되기도 한다. 이 진각종은 육자진언을 수행의 핵심으로 삼고 있지만, 일제 강점기 용성선사(龍城禪師, 1864-1940)처럼 천수다라니와 육자진언을 통한 진언염송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은 사례도 있다. 용성선사는 진언염송을 통해 업장을 소멸한 뒤 청정한 마음 상태의 지속 및 집중력을 키운 뒤 선 수행에 들어섰다고 한다. 용성선사의 저술에서 밀교수행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의 여러 차례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진언지송은 전체의 수행을 뒷받침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³³⁾ 용성 이전의 조선시대에도 보우, 서산 등의 여러 선승들이 밀교 진언수행에 대해 깊은 조예를 지녔었다.³⁴⁾

32) 김무생, 「육자진언의 상징의미」, 『밀교학보』 창간호 (2000), pp.11-12.

33) 김영덕, 「육자대명왕진언·천수다라니 수행과 깨달음-용성선사의 진언지송을 중심으로」, 『대각사상』 12 (2009), pp.147-148.

34) Henrik H. Sørensen, “Esoteric Buddhism and the Tantras in East Asia”, *Esoteric Buddhism Under the Chosŏn*, Leiden; Boston: Brill, 2011, pp.634-642.

2) 천수다라니

현재 한국불교에서 유통되고 있는 『천수경』은 우리나라에 전래된 여러 『천수경』류의 경전을 모아 편집한 것으로 일반 불교의례에서 사용하기 위해 새롭게 편찬된 것이다. 『천수경』류의 경전은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신앙 규범과 다라니를 담고 있는 경전의 총칭’이며 대략 18종에 이른다.³⁵⁾ 관세음보살 신앙은 우리나라에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오늘날까지 열렬히 신앙되고 있다.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중생들의 정신적 번뇌와 육체적 고통을 모두 해탈케 한다고 한다.

이 『천수경』은 한국불교 신자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으며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경전으로 통하고 있다. 이 경전 안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 또는 대비심다라니(大悲心陀羅尼)라고도 불리는 천수다라니가 들어있으며, 이 신주(神呪)를 지성껏 수행한 자는 “14가지 선근(善根) 종자를 얻고 15가지 악하게 죽는 종자를 받지 아니한다.”³⁶⁾고 하였다. 또한 “이 다라니를 듣고 환희하는 중생은 선함과 악함은 물론하고 벌써 삼악도(三惡途) 보응을 면하고 불종자(佛種子)를 심어 장래의 쾌락을 받으리니...”³⁷⁾라고 한다. 현행 『천수경』의 원본격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大陀羅尼經)』에서는 “제가 그때 처음 초지(初地)³⁸⁾에 머물렀었는데 이 주문을 한 번 듣고는 바로 제8지로 뛰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기뻐서 곧 서원을 세우되 ‘만일 내가 오는 세상에 모든 중생을 이롭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당장 나의 몸에 천수천안의 구족함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³⁹⁾라고 되어있다. 이런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에 의지해 현행 대부분의 불교 수행자들은 그 가피를

3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앞의 책, p.70.

36) 용성, 『『천수경』서』, 『용성대종사전집』 6 (1936), p.618.

37) 같은 책, p.614.

38) 불교에서 대승(大乘)의 보살(菩薩)수행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10단계의 경지(境地) 중 첫 단계.

39) 『대정장』 권20, p.106.

언기 위해 천수다라니를 독송하지만 본래 천수다라니는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응축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

현행 한국불교의 경우 아침과 저녁 하루 2회 송주의례를 행하고 있는데 저녁 송주 때 여러 진언과 함께 천수다라니를 외운다.⁴⁰⁾ 이처럼 천수다라니는 사찰의 일상의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용성선사의 경우처럼 개인의 수행증진에도 사용되고 있다.

3) 능엄주와 기타 주문

능엄주(楞嚴呪)는 『능엄경(楞嚴經)』 제7권에 수록되어 전해지는 다라니이다. 현재 한국불교에서 시행되는 능엄주는 대장경 내의 범자를 음역한 한자 음역을 다시 한글음으로 바꾸어 사용되고 있다. 이 능엄주는 선 수행자가 선 수행 중에 나타나는 마장(魔障)을 없애기 위해 예부터 외웠던 신주이다. 『능엄경』에는 수행 중에 생기는 다양한 마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천태대사가 도고마성(道高魔盛)이라고 한 것처럼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장이 많아진다. 능엄주가 이 마장을 제거하는데 효험이 있다고 한다.

『능엄경』에 의하면 능엄주는 삼매 가운데 가장 으뜸인 수능엄삼매(首楞嚴三昧)의 경지를 여는 것을 돕는 주문이다. 또한 선을 닦는 사람이나 청정한 비구들이 과거의 업력을 끊기가 어려우므로 이 신주는 그러한 업장을 끊어준다고 되어 있다. 이 주문이 있게 된 인연은 『능엄경』에 나타나 있다. 즉 아난이 결식을 하는 동안 어떤 음란한 곳을 지나갈 때, 마녀인 마등가(摩登伽)가 환술로 그를 유혹하여 아난이 파계될뻔한 상황에서 부처가神通력으로 이를 알아 아난을 구하고 수능엄삼매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 『능엄경』은 중국과 한국의 강원에서 필수로 선정된 과목이며 그 주석서도 백여 종류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동북아시아 불교의 중요한 수행지침으로 활용되었고 그 수행도

40) 정각, 『한국의 불교의례-상용의례를 중심으로』 (서울: 운주사, 2001), p.249.

비구들의 주요 수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⁴¹⁾

불자들에게 또 많이 염송되는 주문으로 광명진언(光明眞言)이 있다. 이 진언은 지장보살 신앙과 관련된 널리 염송되고 있으며 사자(死者)의 죄업을 덜어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공능이 있다고 한다. 신라의 원효를 비롯하여 중국의 많은 승려들이 이 광명진언의 공덕을 찬탄하였다고 한다.⁴²⁾ 이 외에도 성철(性澈, 1912-1993)이 능엄주와 함께 대중들에게 지송하도록 권장한 ‘법신진언(法身眞言)’ 등이 있다.

Ⅲ. 대순진리회 주문의 형성과정과 그 수행

1. 대순진리회 주문의 형성과정

1) 증산 상제님께서 사용하신 주문

증산(甌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 상제님을 신앙하는 많은 신 흥교파 가운데 가장 교세가 크고 활동이 활발한 교단은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이다. 대순진리회는 신앙의 대상인 강증산 상제님을 ‘구천상제(九天上帝)[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姜聖上帝)]’라는 신격으로 신앙하고 있다.⁴³⁾ 『대순진리회 요람』의 취지에는 “무상한 지혜와 무변의 덕화와 위대한 권능의 소유주이시며 역사적 대중교가이신 강증산 성사께옵서는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서 삼계대권(三界大權)을 주재하시고 천하를 대순(大巡)하시다가...”⁴⁴⁾라고 하여 상제님께서 천지인 삼계의 권능을 주재하

41)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앞의 책, p.82.

42) 같은 책, pp.92-93.

43) 『대순진리회요람』, p.6.

44) 같은 책, p.8.

는 하느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제님에 대한 신앙의 근거는 그 분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상제님께서서는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30년을 지내다가 최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甲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에 강세하였노라”⁴⁵⁾라고 직접 종도들에게 말하면서, 본래 구천의 상제이신 당신께서 신들의 호소와 청원으로 천지인 삼계를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현신하였다고 하였다.

즉 상제님께서서는 당신께서 구천의 상제임을 밝혀주셨고, 상제님을 따라던 당시의 종도들도 상제님의 신이한 행적과 능력을 통해 천지인 삼계의 권한을 주재하는 하느님이시라고 신앙하였던 것이다. 상제님께서서는 당신의 인신강세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시고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⁴⁶⁾

상제님께서서는 상극에 지배되었던 지나간 세상을 선천(先天)이라고 하였고, 이 잘못된 선천 세상을 뜬어 고치고 다가오는 상생의 후천(後

45) 『전경』, 교운 1장 9절.

46) 같은 책, 공사 1장 3절.

天) 세상을 여는 작업을 ‘삼계공사(三界公事)’ 또는 ‘천지공사(天地公事)’라고 하였다. 상제님께서서는 천지공사를 위한 삼계대권을 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으며 일정한 법이 없었다고 한다.⁴⁷⁾ 상제님께서서 실행하신 다양한 방법 중의 한 가지가 ‘주문’이다. ‘주문’이라는 말은 상제님께서 직접 사용하였으며⁴⁸⁾ 『전경』에는 그 정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다. 상제님께서서는 천지공사를 행한 과정에서 여러 주문을 사용하셨으며, 그 중 몇 주문은 종도들에게 익히고 외우게 하셨다. 그런 주문들 중 일부가 후대 상제님을 신앙하는 여러 교단의 각종 의례와 수행에 사용되었다. 그러면 『전경』에서 상제님께서 주문을 사용하시어 천지공사를 행한 여러 사례를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상제님께서서는 기존에 있었던 경문이나 다른 종교의 주문을 사용하시어 천지공사에 활용하셨다. 상제님께서서는 특히 동학 주문인 시천주(侍天呪)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였고 그 주문을 사용하였다. 동학 주문인 시천주는 본래 동학의 교조인 최제우가 상제님과 대면하는 신성한 종교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상제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여겨지는 주문이다. 수운의 종교체험 내용은 『동경대전』의 「포덕문(布德文)」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 가운데 주문과 관련해서는 “...내게서 이 영부를 받아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하고, 나의 주문을 받아 그들이 나를 위하도록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도 장생할 것이고 덕을 천하에 펼 것이다.”⁴⁹⁾라고 되어있다. 초기동학의 주문은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는 글[至爲天主之字]’로 이해되었으며, 그 주문은 선생주문(先生呪文)과 제자주문(弟子呪文)으로 나뉜다.⁵⁰⁾ 다시 제자주문은 초학주문(初學呪

47) 같은 책, 공사 1장 4절, “상제께서 삼계의 대권(三界·大權)을 수시수의로 행하셨느니라. 쏟아지는 큰 비를 견히게 하시려면 종도들에게 명하여 화로에 불덩이를 두르게도 하시고 술잔을 두르게도 하시며 말쑤으로도 하시고 그 밖에 풍우·상설·뇌전을 일으키는 천계대권을 행하실 때나 그 외에도 일정한 법이 없었다.”

48) 같은 책, 공사 2장 3절, 공사 3장 40절, 교운 1장 20절, 교법 2장 23절, 예시 41절.

49)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동학사상자료집』 1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p.8, “...受我此符 濟人疾病 受我呪文 敎人爲我則 汝亦長生 布德天下矣”

50) 최중성, 『동학의 테오프라시스』 (서울: 민속원, 2009), p.81.

文)⁵¹, 강령주(降靈呪)⁵², 본주문(本呪文)⁵³으로 구분된다. 선생주문⁵⁴은 제자주문과 함께 수행이나 예식 때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대개 제자주문만 사용한다. 최제우가 내림받았다는 21자 주문은 강령주에 본주를 합한 즉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인 것으로 보인다.⁵⁵ 동학에서 이 21자 주문은 초기동학에서 강조해온 시천주(侍天主)의 신학을 담고 있으며⁵⁶, ‘시천주’가 지닌 ‘천주를 모시라’와 ‘천주를 모시고 있음’의 이중적 의미는 그 후 동학의 신학과 의례적 발전의 핵심이다.⁵⁷ 그리고 동학 신도들은 21자 주문을 반복적으로 암송하며 직접 시천주를 체험하였다.⁵⁸

상제님께서서는 이 21자 주문을 ‘시천주(侍天呪)’⁵⁹또는 ‘동학주(東學呪)’라고 하셨으며, 그 주문에 담긴 동학의 교리와 실천적인 의미와는 무관하게 천지공사라는 당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시천주를 사용하셨다. 최제우보다 후대의 인물이신 상제님께서 시천주를 사용하신 것은 동학의 주문을 가져다 쓴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구천상제인 상제님께서 최제우에게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내렸다고 하셨으므로⁶⁰ 상제님을 신앙하는 이들은 상제님께서 최제우에게 시천주를 내리셨다고 여긴다.

상제님과 동학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부연하자면, 상제님께서서는 최제우에게 체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셨으나 제우가 유교의 전헌을

51) 위천주고아정 영세불망만사의(爲天主顧我情 永世不忘萬事宜)

52) 지기금지 원위대강(至氣今至 願爲大降)

53)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54) 선생주문은 ‘지기금지 사월래(至氣今至 四月來)’의 7자와 ‘시천주령아장생 무궁무궁만사지(侍天主令我長生 無窮無窮萬事知)’의 14자로 되어 있다.

5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1991), p.816.

56) 최중성, 앞의 책, p.154.

57) ‘시천주’에 담긴 이중적 의미를 둘러싼 동학의 교리와 그 의례에 관련된 논의는 같은 책, pp.85-150 참조.

58) 같은 책, p.155.

59) 증산 상제님의 시천주는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으로 21자 주문과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60) 『전경』, 예시 1절.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셨다고 하셨다.⁶¹⁾ 상제님께서서는 동학의 근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실질적인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셨으며⁶²⁾ 동학군이 패망할 것을 예견하기도 하셨다.⁶³⁾ 즉 상제님께서 보시기에 동학은 실패한 가르침이자 미완성의 운동이라면, 당신의 가르침과 천지공사는 완전무결한 것이다. 이런 입장은 시천주(侍天呪)의 강령(降靈)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에서도 나타난다. 박공우(朴公又)라는 종도가 “동학주(東學呪)에 강(降)을 받지 못하였나이다.”라고 상제님께 여쭙니, 상제님께서서는 “그것은 다 제우강(濟愚降)이고 천강(天降)이 아니니라. 만일 천강을 받은 사람이면 병든 자를 한번만 만져도 낫게 할 것이며 또한 건너다보기만 하여도 나를 지나라. 천강(天降)은 뒤에 있나니 잘 닦으라.”⁶⁴⁾고 하셨다. 동학도들의 시천주 암송에는 천강이 없었으며,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 잘 수행할 때 이후 천강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상제님만이 시천주가 함유하는 참된 의미를 온전히 알고 계시며 시천주가 지닌 기운을 제대로 쓰실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상제께서는 천지공사에서 여러 번 시천주를 사용하셨으며 종도들에게 암송하게 하셨다.⁶⁵⁾

동학의 주문 외에, 상제께서는 ‘칠성경’이라는 주문을 천지공사에 사용하셨다.⁶⁶⁾ 『전경』에는 ‘칠성경’이라고만 언급이 되어있을 뿐 이

61) 같은 책, 예시 1절 참조.

62) 같은 책, 공사 2장 19절 참조.

63) 같은 책, 행록 1장 23절 참조.

64) 같은 책, 교운 1장 58절 참조.

65) 같은 책, 행록 4장 1절, 행록 5장 7절, 공사 3장 22절, 교운 1장 32절, 예시 41절. 지면 관계 상 이중 공사 3장 22절의 구절만을 인용하고자 한다. “상제께서 어느 날 고부 와룡리에 이르사 종도들에게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꾸려면 황극신(皇極神)을 옮겨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도다. ‘황극신은 청국 광서제(淸國光緒帝)에게 응기하여 있다’ 하시며 ‘황극신이 이 땅으로 옮겨 오게 될 인연은 송우암(宋尤庵)이 만동묘(萬東廟)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느니라’하시고 밤마다 시천주(侍天呪)를 종도들에게 암송케 하사 친히 음조를 부르시며 ‘이 소리가 운상(運喪)하는 소리와 같도다’하시고 ‘운상하는 소리를 어로(御路)라 하나니 어로는 곧 균양의 길이로다. 이제 황극신이 옮겨져 왔느니라’고 하셨도다. 이때에 광서제가 붕어하였도다.”

66) 같은 책, 행록 4장 12절, 공사 2장 9절, 공사 2장 13절, 공사 2장 21절, 교운 2장 21절, 권지 1장 15절.

경의 내용이 실려 있지 않아 어떤 경을 가리키는지 확정할 수 없다. 다만 공사 2장 21절의 “칠성경에 문곡(文曲)의 위치를 바꾸어 놓으셨도다”라는 구절에서, 불교에서 인간의 수명·자녀 생산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북두칠성에게 청하여 칠성청(七星請) 의식 가운데 ‘문곡’의 표현이 들어있는 ‘북두주(北斗呪)’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⁶⁷⁾ 대순진리회에서도 이 북두주와 같은 주문을 ‘칠성주’라고 부르며 여러 주문 가운데 포함되어있고 ‘문곡’의 위치를 바꾸어서 송주하고 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서는 유교의 경전인 ‘서전 서문(書傳序文)’과 ‘대학(大學)’을 중요시 하셨다. 상제님께서서는 종도들에게 “서전 서문(書傳序文)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하고 대학 상장(大學上章)을 되풀이 읽으면 활연 관통한다.”⁶⁸⁾라고 하셨으며 영학이라는 종도에게 대학을 읽으라고 명하기도 하셨다.⁶⁹⁾ 하지만 대학의 문구적 의미나 거기에 담긴 사상보다는 주문처럼 송주하는 것을 더 중시하였다. 상제님께서서는 이 대학의 문구를 주술적으로 사용하여 문둥병을 치유하시거나⁷⁰⁾ 창증의 치료에 이용하시는⁷¹⁾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건감간진손이 곤태(乾坎艮震巽離坤兌)’를 종도들에게 외우게 하신다거나⁷²⁾, 64괘를 암송하게도 하셨다.⁷³⁾

67)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113 (2010), pp.88-111 참조.

68) 『진경』, 교법 2장 26절.

69) 같은 책, 권지 1장 28절.

70) 같은 책, 제생 14절, “동곡 김갑진(金甲辰)은 문둥병으로 얼굴이 붓고 눈썹이 빠지므로 어느 날 상제를 찾고 치병을 청원하였도다. 상제께서 갑진을 문 바깥에서 방 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형렬과 그 외 몇 사람에게 대학 우경일장을 읽게 하시니라. 10여 분 지나서 갑진을 돌려보내셨도다. 이때부터 몸이 상쾌하여 지더니 얼마 후에 부기가 내리고 병이 멎었도다.”

71) 같은 책, 제생 32절,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과 함께 가시다 한 주막에 들어가셨도다. 상제께서 그 집 주인을 보시더니 ‘저 사람이 창증으로 몹시 고생하고 있으니 저 병을 보이주라’고 종도들에게 이르시고 ‘대학지도 재명명덕 재신민 재지어 지선(大學之道在明明德 在新民在止於至善)’을 읽히시니라. 집 주인은 물을 아래로 쏟더니 부기가 빠지는도다. 상제께서 웃으시며 ‘너희들의 재조가 묘하도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길에 오르셨도다.”

72) 같은 책, 교운 1장 47절, 교운 1장 52절.

73) 같은 책, 제생 20절.

상제님께서서는 위의 경우처럼 기존의 제 종교의 경전, 주문, 문구를 사용하시기도 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주문을 만들기도 하셨다. 먼저, 상제님서는 ‘오주(五呪)⁷⁴⁾라는 주문을 지어 천지의 진액(津液)이라 이름하시오⁷⁵⁾ 중도들에게 이를 읽게 하고 “만 명에게 전하라.”고 하셨다.⁷⁶⁾ 이외에 ‘결군곳 초란이패 남사당 여사당 삼대치⁷⁷⁾란 주문을 쓰기도 하셨으며 ‘예고신 예행신 석란신 동서남북 중앙신장 조화조화 운오명령흙(曳鼓神曳彭神石蘭神東西南北中央神將造化造化云吾命令咩)’란 주문을 사용하여 앓은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셨다. 이러한 주문들은 『전경』에서만 확인되며 현재 대순진리회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대순진리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상제님께서 직접 지으셨거나 당신에 의해 널리 유통된 주문은 ‘운장주(雲長呪)’, ‘진법주(眞法呪)’와 ‘태을주(太乙呪)’이다. 상제님께서 지으신 운장주는 “천하영웅관 운장 의막처 근청천지팔위제장 육정육갑육병육을 소술제장 일반병영 사귀음음급금여물령 사바아(天下英雄關雲長 依幕處 近聽天地八位諸將 六丁六甲六丙六乙 所率諸將 一別屏營 邪鬼唵唵唵如律令娑娑啊)”⁷⁸⁾이며 이 운장주로써 장효순의 난⁷⁹⁾을 풀었다고 하셨다.⁸⁰⁾ 진법주는 상제님께서 전국을 3년 동안 주유하신 후 고향인 객망리 시루봉에서 공부하시면서 외우신 주문이다. 상제님서는 이 주문을 외우시면서 48장과 28장 공사를 보았다고 하셨다.⁸¹⁾ 마지막으로 ‘태을주’는 상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주문이다. 그러므로 상제님께서 태을주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74) 新天地家家長歲 日月日月萬事知,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 明德觀音八陰八陽 至氣今至願爲大降, 三界解魔大帝神位願 趁天尊闢聖帝君.

75) 『전경』, 교운 1장 30절 참조.

76) 같은 책, 교운 1장 59절 참조.

77) 같은 책, 공사 2장 3절.

78) 같은 책, 교운 1장 22절.

79) 같은 책, 행록 3장 1절-9절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

80) 같은 책, 행록 3장 31절.

81) 같은 책, 행록 2장 10절.

상제께서 어느 날 류찬명(柳贊明)과 김자현(金自賢) 두 종도를 앞에 세우고 각각 10만 인에게 포덕하라고 말씀하시니 찬명은 곧 응낙하였으나 자현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상제의 재촉을 받고 비로소 응낙하느니라. 이때 상제께서 “내가 평천하 할터이니 너희는 치천하 하라. 치천하는 50년 공부이니라. 매인이 여섯 명씩 포덕하라”고 이르고 또 “내가 태을주(太乙呪)와 운장주(雲長呪)를 벌써 시험해 보았으니 김병욱의 액을 태을주로 풀고 장효순의 난을 운장주로 풀었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⁸²⁾

태을주가 태인 화호리(禾湖里) 부근 솟구지에 전파되어 동리의 남녀노소가 다 외우게 되니라. 상제께서 이 소문을 전하여 들으시고 “이것은 문공신의 소치이니라. 아직 때가 이르므로 그 기운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시고 약방 벽상에 “기동북이 고수 이서남이 교통(氣東北而固守 理西南而交通)”이라 쓰고 문밖에 있는 반석 위에 그림을 그리고 점을 찍고 나서 종이에 태을주와 김경훈(金京訥)이라 써서 붙이고 일어서서 절하며 “내가 김경훈으로부터 받았노라”하시고 칼·붓·떡·부채 한 개씩을 반석 위에 벌여 놓으셨도다...⁸³⁾

종도들이 모인 곳에서 상제께서 3월 어느 날 가라사대 “지금 은 신명 해원시대니라. 동일한 50년 공부에 어떤 사람을 해원 하리오. 최제우는 경신(庚申)에 득도하여 시천주(侍天呪)를 얻었는바 기유(己酉)까지 50년이 되니라. 충남(忠南) 비인(庇仁) 사람 김경훈(金京訥)은 50년 공부로 태을주(太乙呪)를 얻었도되 그 주문을 신명으로부터 얻을 때에 그 주문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명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 두 사람 중의 누구를 해원하리오”라고 물으시니 시좌하고 있던 종도들 중에서 광찬이 “상제님의 처분을 기다리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시천주는 이미 행세되었고 태을주를 쓰리라”하시고 읽어 가르치시니 그 주문은 이러하였도다. 吽哆吽哆 太乙天上元君 吽哩哆哪都來 吽哩嘛哩娑婆啊.⁸⁴⁾

어느 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오는 잠을 적게 자고 태을주

82) 같은 책, 행록 3장 31절.

83) 같은 책, 공사 3장 28절.

84) 같은 책, 교운 1장 20절.

를 많이 읽으라. 하늘에서 으뜸가는 임금이니라. 5만 년 동안
동리 동리 각 학교마다 외우리라”하셨도다.⁸⁵⁾

교운 1장 20절에서 상제님께서서는 태을주의 유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래 이 태을주는 충청남도 비인(庇仁) 사람 김경흔(金京訢)이 50년 동안 입산수도하여 신명으로부터 얻은 주문이라는 것이다. 상제님께서서는 시천주는 이미 행세가 되었으므로 태을주를 쓴다고 하였으며 오는 잠을 적게 자며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고 당부하였다. 동학도들의 외면적으로 드러난 특징 중 하나가 시천주를 송독하는 것이었다면⁸⁶⁾, 상제님을 따르던 신도들의 특징은 태을주를 염송하는 것이었다. 즉 상제님을 따르던 신도들은 태을주를 많이 염송하였기 때문에 ‘흠치교’ 또는 ‘태을교’라고 불렸다. 총독부 촉탁의 신분으로 동학과 상제님을 신앙한 여러 교파를 ‘유사종교(類似宗教)’라고 칭하며 그 실태를 조사하였던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도 상제님을 신앙한 제(諸) 교파를 ‘흠치계 유사종교 단체’라고 명명하면서 ‘동학계 유사종교’의 다음 장에 기술하고 있다. 이는 그가 동학과 더불어 상제님을 신앙한 제 교파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무라야마 지준은 교세 확장의 원인에 대해서 상제님의 영험한 능력과 주문의 효험을 들고 있다.

이 주문을 언제나 독송하면 병자는 낫고 무병자는 더욱 건강해지고 모든 소원이 뜻대로 성취되며, 모든 인생의 행복을 향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포교에 노력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은 물

85) 같은 책, 교운 1장 60절.

86) 수문이 철폐될 때 선전관이었던 정운구(鄭雲龜)는 “조령에서 경주까지는 400여리에 이르고 그 사이에 주와 군이 십여 개나 됩니다. 그런데 동학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루도 빠짐 없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주막의 아낙네나 산골의 아이들마저도 다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 위천주라고도 부르거나 또는 시천주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시다.”라고 하였다. 이 기록에서 당시 시천주 주문이 민중에게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고종실록』 권1, 고종 원년 12월 20(임진). 최종성, 앞의 책, p.83 재인용. 황현, 『오하기문(梧下紀聞)』, 감종의 읍금(서울: 역사비평사, 1994), p.232에서도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론 근향의 사람들도 귀의하는 자가 많았고, 병자에게는 주문을 읊게 하는 한편 의약도 함께 베풀었으므로 쾌유하는 자가 속출하고 쾌유자는 그를 완전히 신인으로 믿고 그 효험을 들려주어 다른 사람들을 권유하여 입교시켰으며, 또한 그가 수시 행하는 예언의 적중 및 많은 기적은 점차 교의 확장을 촉진하였다.⁸⁷⁾

즉, 상제님을 신앙한 여러 교단의 초기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태을주 주문이 교단의 발전과 교리의 성립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김탁도 증산의 사후 태을주에 대한 효험⁸⁸⁾을 매개로 상제님에 대한 이야기가 인구에 회자되며 신앙적 형태가 형성되고 그 후 점차 교리가 체계화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⁸⁹⁾

정리하자면, 상제께서는 기존에 알려진 경전이나 주문을 자신의 입장에서 새롭게 전유하시어 천지공사에 사용하셨으며, 진법주와 운장주를 직접 지으시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태을주를 쓰셨고 종도들에게 자주 암송하게 하였다.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후 종도들은 태을주를 읽는 것으로 포교방법을 정하며 초기 상제님을 신앙하는 여러 교단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2) 조정산 도주님의 주문 정립

도주(道主)이신 정산(鼎山) 조철제(趙哲濟, 1895-1958)께서는 경상남도 함안군 출신으로 부조(父祖) 전래(傳來)의 배일(排日) 사상을 품고 반일운동에 활약하시다가 가족들과 함께 만주 봉천으로 망명하였다. 동지들과 구국운동을 하다 도력(道力)으로 구국제세(救國濟世)할 뜻을 정하시고 입산수도를 하셨다. 입산수도 9년 만인 1917년에 정산께서는 상제의 삼계 대순(三界大巡)의 진리를 감오(感悟)하셨으며 상

87)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유사종교』, 최길성·장성언 공역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p.244.

88) 김탁은 당시의 태을주 효험의 예로 주로 치병을 들고 있으며 개안과 감회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89) 김탁, 『증산교학』 (서울: 미래향문화, 1992), pp.123-124.

제님이신 증산 성사로부터 종통계승(宗統繼承)의 계시를 받으셨다.⁹⁰⁾ 또한 도주님께서서는 공부 중에 한 신인으로부터 “이것을 외우면 구세 제민(救世濟民)하리라.”라는 말씀을 들으셨으며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주문을 받으셨다.⁹¹⁾ 이는 최제우가 상제님으로부터 받았다는 21자 주문인 ‘시천주’와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다는 차이가 있다. 도주님께서서는 이 주문을 ‘기도주(祈禱呪)’라고 부르셨으며 태을주와 더불어 중요시하셨다.

도주님께서서는 당신이 증산 상제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계승한 적통 자임을 주장하셨으며 상제님으로부터 자신에게 내려오는 정통성을 종통(宗統)이라고 하셨다. 이런 말씀의 배경에는 당시 상제님을 따르는 교파가 난립하였으며⁹²⁾ 이들 간에 난법(亂法)과 진법(眞法)의 시비가 있던 정황이 있다. 상제님께서 교운공사(敎運公事)를 보실 때 먼저 난법을 지어 많은 교파가 제 나름으로 분립하게 한 뒤에 진법이 나오게끔 예정하였다고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기도 한다.⁹³⁾

대순진리회 수도인들은 도주님께서 상제님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당연히 믿으며 그 신학적 근거를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하기도⁹⁴⁾ 하지만 보통 크게 세 가지를 든다. 첫 번째가 도주님께서 만주 봉천에서 상제님으로부터 영적인 계시와 주문을 받으셨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누이동생인 선돌부인의 집에서 상제님의 유품인 봉서(封書)를 받으신 것이다.⁹⁵⁾ 『전경』에는 나와 있

90) 『전경』, 교운 2장 6절; 『대순진리회요람』 p.12 참조.

91) 『전경』, 교운 2장 7절.

92) 이강오, 『한국의 신흥종교 자료편 제1부』, 『전북대학교 사대논문집』 7 (1966), pp.135-136에 ‘증산교단 분파 일람표’에서 92개의 교파를 나열하고 있으며, 유병덕, 『한국민중종교사상론』 (서울: 시인사, 1985), pp.299-300에서는 41개를 열거하고 있다.

93) 『전경』, 교운 2장 42절,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과 함께 계실 때 ‘나의 일이 장차 조장봉기(楚將蜂起)와 같이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되 다시 진법이 나오게 되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도다.”

94) 상제님의 말씀에 기초한 관점, 역학적 관점, 천지공사적 관점, 불교의 모악산 금산사 미륵전의 형상 등 여러 담론이 양상되어 있다.

95) 『전경』, 교운 2장 13절 참조.

지는 않지만 봉서는 현무경(玄武經)과 주문서(呪文書)라고 전한다.⁹⁶⁾ 세 번째는 상제께서 설치하신 구릿골 약방에 비치되었던 둔계를 얻게 되신 일이다.⁹⁷⁾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주문과 관련이 있다. 또한 『대순지침』에는 “도주님께서 진주(眞主:15세)로 봉천명(奉天命) 하시고 23세시에 득도하심은 태을주(太乙呪)로 본령합리(本領合理)를 이룬 것이며”라고 하여, 도주님께서 23세에 상제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태을주 23자와 본령합리를 이룬 것이라고 한다. 즉 주문의 전수 또는 주문 그 자체가 올바른 법의 계승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도주님께서서는 상제님의 유지(遺志)를 계승하셨으며 50년 동안 공부를 하여 도법(道法)을 짜셨다.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신명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신비적인 요소가 많았으며 인간이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법방이 구축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후 종도들은 상제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몰랐으며, 각각 자신들이 생각한대로 행하다보니 각기 다른 교파가 난립하게 되었다. 도주님께서서는 교리와 의례를 확립함으로써 교단의 기틀을 세워 상제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도주님께서서는 1925년에 증산 상제님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 봉안하시고 중지 및 신조와 목적을 정하셨다.⁹⁸⁾ 또한 봉서에서 받은 주문을 기초로 송독할 주문과 그 시행 방법을 확정하여 신도들에게 가르치셨다.⁹⁹⁾ 이렇게 확정된 교리와 의례 그리고 조직체계가 ‘법(法)’이 되었으며, 우당(牛堂) 박한경(朴漢慶, 1917-1996)께서는 이 도주님의 유행(遺法)을 숭신하여 귀의할 바를 삼고자 종단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셨다.

지금 대순진리회에서 송독하는 주문 외에 도주님께서서는 여러 주문을

96)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100 (2009), p.60.

97) 『진경』, 교운 2장 14절-20절 참조.

98) 같은 책, 교운 2장 32절.

99) 같은 해인 을축년 설날 도주님께서서는 신도들이 기도할 때 읽는 주문을 12가지로 제한하고 그 내용 일부도 변경하셨으며 읽는 순서와 횟수를 정하셨다. 홍범초, 『법 증산교사』 (서울: 한누리, 1988), p.364.

공사(公事)에 사용하셨다. 관련 주문은 음양경(陰陽經), 운합주(運合呪), 개벽주(開闢呪), 옥주통(玉樞統), 명이주(明耳呪), 오방주(五方呪), 오장주(五臟呪), 구령삼정주(九靈三精呪) 등이다. 이 주문들은 당대에만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오늘날 대순진리회 수도인들은 송주하지 않는다.¹⁰⁰⁾

정리하자면 상제님께서 주로 천지공사에 여러 주문을 사용하셨지만 도주님께서서는 신도들의 의례와 수행을 위해 한정된 주문을 송주하는 법방을 세워 주셨다. 상제님께서 종도들에게 주문을 외우게 하신 것도 천지공사의 도수에 쓰이기 위함이 주를 이뤘던 것이다. 또한 상제님의 신비한 권능이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발현되어 종도들의 병이 치유가 되는 등의 신이한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도주님의 경우 그런 외적인 신비한 작용이나 현상보다는 수도인들의 의례와 수행에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도주님의 “상제께서 짜 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 나가노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도주님께서 독립적으로 주문 의례를 정하셨다고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이는 곧 상제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주님께서서는 ‘공부(工夫)’를 많이 행하셨는데 도주님의 ‘공부’는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뒤이어 완결을 짓는 것으로 주문이 많이 사용되었다. 도주님께서서는 당신의 공부 외에 수도인들을 위한 공부로 시학공부(侍學工夫)와 시법공부(侍法工夫)를 짜 놓으셨다.¹⁰¹⁾

2. 대순진리회에서의 주문 수행

1) 일상의례에서의 주문

대순진리회는 증산 상제님의 유지와 조정산 도주님의 유행을 승신

100) 『전경』, 교운 2장 42절 참조.

101) 같은 책, 교운 2장 62절.

하는 종단이다. 그러므로 도주님께서 세운 교리와 의례를 준수하고 있다.¹⁰²⁾ 그러므로 치성의례, 일상의례와 수도(修道)에서 송독되는 주문¹⁰³⁾도 대순진리회의 전신인 태극도의 주문과 큰 차이가 없다.¹⁰⁴⁾ 『대순진리회 요람』에는 수도를 공부, 수련, 평일기도, 주일기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는 “심신(心身)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대월(對越) 상제(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을 단전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하는 일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으로 소정의 주문을 봉송(奉誦)한다.”¹⁰⁵⁾라고 되어있다.

- 공부 : 일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지정된 시간에 주문을 송독한다.
- 수련 : 시간과 장소의 지정이 없이 기도주 혹은 태을주를 송독한다.
- 평일기도 : 매일 축·미시에 자택에서 행한다. 단 외출 시는 귀가 후 보충한다.
- 주일기도 : 갑(甲)·기(己)일, 자·오·묘·유시에 지정된 장소 혹은 자택에서 행한다.¹⁰⁶⁾

위의 『대순진리회 요람』에서는 평일 기도를 축·미시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진·술·축·미시 즉 오전 1시와 7시, 오후 1시와 7시에 자택, 회관, 도장에서 행한다. 기도는 단상이 마련된 정결한 곳에서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르며 납폐지라고 불리는 주문이 적힌 종이 9장을 태우면서 주문을 봉송하는 의례이다. 새벽 1시인 축시 기도 시에는 청수를 떠서 올리는 데 이를 ‘법수(法水)’라고 한다. 기도가 진·술·축·미시에 실행하는 것은 이 시간 때가 오행 중 토

102) 도주님과 도주님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하신 우당 박한경 도전님과의 관계 그리고 도주님께서 창도하신 태극도와 도전님께서 창설하신 대순진리회의 차이점과 관련해서는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103) 대순진리회 주문은 ‘봉축주 - 태을주 - 기도주 - 진법주 - 칠성주 - 운장주 - 이십사절주 - 이십팔수주 - 도통주 - 신장주 - 신성주 - 해마주’ 순으로 되어있다.

104) 봉축주와 진법주 일부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다른 주문은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

105) 『대순진리회요람』, p.18.

106) 같은 책.

(土) 기운이 작동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행 중 특히 금(金)과 화(火)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를 금화상쟁(金火相爭)이라고 하는데 토기가 이를 중화한다고 한다. 즉 토기는 화순(和順)과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성질을 지닌 절대중화지기(絕大中和之氣)이다.¹⁰⁷⁾ 이런 토기가 작동하는 시간에 기도를 함으로써 인체 내의 화기를 중화하고 몸과 마음을 참되게 결실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화상쟁과 관련하여 좀 더 부연하자면, 구한 말 김일부(金一夫)는 억음존양(抑陰尊陽)의 선천세상이 조음율양(調陰律陽)의 후천세상으로 개벽된다고 하면서 금화상쟁이 금화교역(金火交易)이 되는 새로운 역인 『정역(正易)』을 밝혔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에서 김일부를 청국 명부로 삼는 등 그를 높이 평가하였는데, 그런 점에서 김일부의 주장을 긍정하셨다고 할 수 있다. 김일부가 말한 조음율양과 관련해서도 상제께서는 선천에는 음양이 고르지 못하였다고 하며¹⁰⁸⁾, 음양 도수를 조정하여 정음정양(正陰正陽)의 도수를 열었다.¹⁰⁹⁾ 즉 지난 선천은 상극, 억음존양, 금화상쟁의 시대라면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의해 개벽되는 후천은 상생, 정음정양, 금화교역의 시대이다. 이러한 천지개벽의 변환의 시대에 인간의 수도로 당위로 여겨지며 그 변화의 원리에 맞추어 토기가 작동하는 시간에 기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 기도 시 주문송독은 먼저 봉축주를 하고 태을주와 기도주를 4독씩 한 다음, 주문 전문을 1독 한 후 태을주와 기도주를 각각 24독을 한다. 이 과정이 대략 20분 정도 소요된다. 주일기도는 한복을 입고 갑일과 기일 즉 매 5일 마다 지방회관에서는 오(午)시 도장에서는 자·오·묘·유시에 한 시간 동안 주문을 송독하는 의례이다. 수련은 시간이 되는 데로 정결한 장소에서 주문 1독을 한 후 태을주만 계속 반복하여 외우는 것이다. 보통 1시간 정도로 정해서 한다.

도전님께서서는 기도에 대해 “모든 도인들은 기도에 간직된 진리를

107) 한동석, 『우주 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68.

108) 『전경』, 공사 2장 20절, 공사 3장 21절.

109) 같은 책, 공사 2장 16절.

바르게 알아야 한다. 기도에 대한 인식이 옳고 그름에 따라 믿음이 참된 믿음도 되며, 거짓된 믿음도 될 수 있다. 그러니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야 하며 가면가식이란 있을 수 없다. 참된 정성이 있는 곳에 상제님의 하감(下鑑)이 있는 것이며, 천지신명의 보살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¹¹⁰⁾고 하셨다. 즉 기도는 사람이 정성된 마음으로 주문을 봉송할 때 상제님의 하감과 신명의 응감(應感)이 있게 되는 영적 교통의 의례이다. 도전님께서서는 “도를 닦는 행사에 있어서 주문이 제일 중요하다.”¹¹¹⁾고 하셨고, “제일 먼저 익혀야 되는 것이 주문이다. 입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¹¹²⁾라고 하시어 주문을 중시하셨다.

수련은 “자기 자신의 현재의 심성과 기질을 닦아서 맑고 바른 본래의 심성과 기질로 환원시키는 마음과 몸의 단련”¹¹³⁾이다. 이 양 측면을 수심연성(修心煉性)과 세기연질(洗氣煉質)이라고 한다. 대순진리회에서는 태을주 암송을 통해서 수련을 행한다.

2) 공부에서의 주문

일상의례에서 주문이 선행되는 것과 별도로 ‘공부(工夫)’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주문을 송독하기도 한다. 대순진리회의 공부는 일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지정된 시간에 주문을 송독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시학공부(侍學工夫)와 시법공부(侍法工夫)가 있다. 이 공부는 도주님께서 50년 공부 끝에 이룩하신 유일무이한 진법(眞法)공부이라고 한다. 또한 이 공부의 의미는 후천의 우주 운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¹⁴⁾ 즉 공부에 참여한 수도인[공부자]은 상제님의 후천을 여는 천지공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공부자의 주문 한 글

110) 1986년 4월 우당 훈시, 『훈시』 (대순진리회 내부 자료)

111) 1992년 4월 우당 훈시, 같은 책.

112) 1991년 7월 우당 훈시, 같은 책.

113)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p.170.

114) 대순종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2003), p.214.

자 한 글자가 후천 세계를 건설하는데 쓰인다고 믿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도전님께서도 공부가 생명보다 중요하다면서 누차 공부의 중요성과 공부자의 마음가짐과 정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공부의 범방은 대순진리회의 전신인 태극도(太極道) 당시에 도주님에 의해 짜여졌다.

도주께서 이해 11월에 도인들의 수도공부의 설석을 명령하고 공부는 시학(侍學) 시법(侍法)으로 구분케 하고 각 공부반은 36명으로 하며 시학은 5일마다 초강식(初降式)을 올리고 15일마다 합강식(合降式)을 올리며 45일이 되면 봉강식(奉降式)을 행하게 하고, 시법은 시학공부를 마친 사람으로서 하되 강식을 거행하지 않고 각 공부 인원은 시학원(侍學員) 정급(正級) 진급(進級)의 각 임원과 평신도로써 구성하고, 시학원은 담당할 공부반을 지도 감독하고 정급은 시간을 알리는 종을 올리고 진급은 내빈의 안내와 수도처의 질서 유지를 감시하여 수도의 안정을 기하게 하고, 시학관(侍學官)을 두어 당일 각급 수도의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셨도다. 115)

시학공부는 하루에 한 반씩 해서 45일이 되면 45반이 한 호가 되고 한 호가 시학공부의 단위가 된다. 한 반의 구성 인원은 36명으로 5일마다 초강식을 하고, 15일마다 합강식을 하고, 45일에는 봉강식을 한다. 한 호의 구성인원은 1620명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시학공부를 한 뒤 초강식·합강식·봉강식을 마쳐야 시학공부를 완전히 마치게 된다. 시학공부를 완전히 마친 사람에게 한해 시법공부를 할 자격이 주어진다. 대순진리회에서는 1991년 하지부터 시학공부와 시법공부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공부에 있어 임원과 외수(外修) 공부자·내수(內修) 공부자¹¹⁶⁾가 봉송하는 주문이 다르다. 임원은 칠성주와 운장주를 암송하며, 내·외수 공부자는 태을주·기도주·도통주를 자신이 맡은 특정 시간에 봉송한다.¹¹⁷⁾

115) 『전경』, 교운 2장 62절.

116) 외수는 남성 수도자를 내수는 여성 수도자를 지칭한다.

IV. 한국 불교 진언과 대순진리회 주문의 비교

1. 유사점으로서의 불가해성

불교의 진언다라니와 대순진리회의 주문¹¹⁸⁾을 모두 포함한 넓은 의미의 ‘주문’이라는 개념을 제안해보자. 이럴 경우 ‘주문’은 일상 언어와는 구별되며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구두 언어라는 특징을 지닌다. 구별된다는 것은 ‘주문’이 일상 언어와는 다른 신비한 언어이며 그래서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는 것일 수도 있으며 일상 언어의 소통 방식과는 구별되는 것일 수도 있다.

먼저 불교에서의 천수다라니, 능엄주, 광명진언 등은 전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산스크리트 원전의 불경이 번역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현장(玄奘, 602-664)은 불경을 번역하면서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번역하지 않는다는 오종불번(五種不翻)¹¹⁹⁾의 원칙을 세웠다. 그 중 첫 번째인 비밀고(秘密故)는 다라니의 말과 같이 미묘하고 깊어서 생각할 수 없는 비밀어는 번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라니는 원어인 실담(悉曇) 문자¹²⁰⁾를 한음(漢音)으로 음사하였고 이것을 다시 우리 한글음으로 바꾼 것이라 그 뜻을 알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천수경』의 핵심인 천수다라니 또는 대비

117) 지면 관계 상 시학공부와 시법공부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방식에 대한 내용은 논외로 하겠다.

118) IV장에서 불교 진언을 가리킬 경우는 진언으로, 대순진리회의 주문은 주문으로 표기하며 이를 포함한 일반적 의미의 주문은 ‘주문’로 표기한다.

119) 광철환, 『시공불교사전』 (서울: 시공사, 2003), “현장(玄奘, 602-664)이 제시한 것으로, 산스크리트 원전을 한문으로 옮길 때, 낱말을 번역하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은 다섯 종류. (1) 비밀스런 말은 번역하지 않음. 예, 다라니(陀羅尼). (2)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말은 번역하지 않음. 예, 박가범(薄伽梵). (3) 중국에 없는 것은 번역하지 않음. 예, 엄부수(閻浮樹). (4) 예부터 소리나는 대로 적고 번역하지 않은 것은 그에 따라 번역하지 않음. 예, 아녹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 (5) 번역하면 그 뜻이 옳고 가벼워지는 말은 그 말을 존중하여 번역하지 않음. 예, 반야(般若).”

120) 고대인도의 범어문자로 중국에 불교가 전래될 당시의 인도문자였다. 지금 인도에서는 이 문자를 쓰지 않고 간략화 된 데바나가리(devanāgarī)라는 문자를 쓴다.

주라고 불리는 신묘장구대다라니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몇몇 소수의 예¹²¹⁾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인 것도 ‘오종불변’의 원리가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주문’을 외우는 수행자들의 대부분은 그 의미를 모르고 암송한다. 불교전통에서 육자대명왕진언을 제외한 신묘장구대다라니, 능엄주, 광명진언, 법신진언 등의 주문은 그 문구에 의미나 해석이 거의 없다. 대순진리회의 경우 중요한 주문인 태을주와 기도주에 대한 경전적 해석이나 교리적 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기도주의 경우 한자를 통해서 유추할 수도 있겠지만 태을주의 경우는 더욱 그 해석이 어렵다. 대순진리회의 기타의 주문에는 여러 신격의 명호가 등장하며 한자 자체의 뜻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문 글자 자체에 대한 의미 해석은 경전 상에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대순진리회의 주문도 불가해성의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불교의 진언다라니는 현상이 오종불변의 원칙을 세워 뜻풀이를 하지 않고 음사만 함으로써 완벽하게 무의미한 것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경우 근래에 몇몇 학자들이 범어를 공부하여 그 의미를 밝힌 것이 학문적 성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인들의 실행과는 전혀 무관하다. 즉 ‘주문’은 의례학자 Frits Staal의 지적처럼 ‘불가해성(meaninglessness)’¹²²⁾을 그것의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의미와 1:1로 대응하는 것이 언어라고 한다면 ‘주문’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언어라고 할 수 없다. 언어 아닌 언어, 다만 소리만이 있는 언어가 된다. ‘주문’이 의미가 없음을 기호학의 술어를 빌려서 표현한다면, ‘주

121) 한국의 경우 ‘정태혁, 앞의 책, pp.380-386’, ‘전재성, 『천수다라니와 붓다의 가르침』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3)’, ‘정각, 앞의 책, pp.211-243’ 이 중 특히 정각은 정태혁과 전재성의 해석문을 함께 실어 다라니 해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22) Frits Staal, "The meaninglessness of Ritual", *Numen* 26:1 (1975), pp.2-22. Staal은 의례 언어의 가장 주요한 특성은 그것이 하는 행위이지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며 의례는 순수한 수행으로서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meaninglessness’의 정확한 번역은 ‘무의미성’이지만 이 번역이 ‘목적 혹은 대상없음’으로 여겨질 수 있다. 주문이 지닌 고도의 상징과 해석 불가의 특징을 고려하여 ‘불가해성’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문'은 기의(記意, signifie)가 없으며 그저 기표(記表, significant)만이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주문'은 표의적인 의미보다는 발화에 의한 음성적인 효과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요가의 일종인 만트라 요가에서는 음성의 진동이 인간 육체에 강력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한다. 특정한 음향을 반복 염송할 때 체내의 부위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그러한 진동이 발생할 때 자연의 음향과 화합될 수 있다고 한다.¹²³⁾ 특히 수행자들이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의 차별을 떠나 같은 공간에서 혼자서가 아닌 그룹이나 단체로 같이 '주문'을 반복 염송할 때, 그 소리에 전신이 동조되며 의식적 변화를 가져오는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김호성에 의하면 다라니의 불가해성으로 인해 『천수경』 그리고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선종(禪宗)에서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직지인심(直指人心)과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종지로 하는 선종과 다소 의례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을 지닌 다라니와는 그 성격이 맞지 않아 보인다. 김호성은 화두가 의미 차원에서 문제되지 않고 용도나 용법 차원에서 문제되는 것처럼 수행에 있어 의미가 없는 다라니도 같은 도구적 기능을 한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의식은 분별지로 가득한 데 불가해한 다라니 염송을 통해서 분별지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즉 삼매와 깨달음을 위한 도구의 기능을 한다는 면에서 화두와 다라니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¹²⁴⁾

의미보다는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기능 외에 또 강조되는 것은 '주문'이 가진 힘 즉 주력(呪力)이다. 즉 '주문'은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성스러운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먼저 불교 전통에서는 『대일경』, 『금강정경』, 『능엄경』, 『대승장엄보왕경』 등의 경전에서 진언의 주력과 공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도 수련 시에 태을주를 송독함으로써 그 주력을 통해 수심연성과 세기연질을 하고자 한다.

123) 정태혁, 『요가수트라』 (서울: 동문선, 2000), pp.226-228.

124) 김호성, 앞의 책, pp.201-230.

즉, 불교의 진언과 대순진리회의 주문은 모두 일상의 소통의 언어가 아닌 신비의 언어이며 일반적인 언어의 의미보다는 불가해성이 강조되고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적 기능이 있으며 그것이 주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2. 차이점

1) 상징과 의미의 차이

진언과 주문이 모두 일상적 언어의 의미가 없으며 불가해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그렇다고 정말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그저 소리만의 언어라는 것은 아니다. ‘주문’의 ‘불가해성’은 곧 무수한 의미와 성스러운 상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고와 판단으로는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스러움의 속성과도 상통하며 그 성스러움을 일상의 언어로 규정짓는 것을 거부하는 여러 종교의 태도와도 통하는 부분이다.

즉 진언과 주문은 불가해성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상징과 의미와 교리적 배경을 담지하고 있다. 이를 ‘불가해성(meaninglessness)’의 반대말인 ‘의미성(meaningfulness)’이라고 정의할 때, 진언과 주문은 그 의미성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진언의 경우 선불교 전통에서 활용되고 있는 천수다라니와 능엄주, 광명진언, 법신진언 등의 경우는 불가해성의 특징을 강하게 보인다. 즉 그 의미보다는 진언다라니가 지닌 힘과 효력을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육자대명왕진언의 경우는 위의 진언과는 다른 많은 상징과 교리적 해석이 부과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옴마니반메훬’의 여섯 글자 각각이 다섯 부처와 금강보살을 상징한다. 특히 옴은 우주의 법칙을 상징하며 훬은 개별상이 지니는 우주적 원리를 담고 있다. 옴은 진언의 모든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훬은 진언의 요소의 구체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대승장엄

보왕경』에 의하면 이 여섯 글자는 대승에서의 보살의 실천행인 육바라밀(六波羅蜜)과도 연결되며, 티벳의 경전인 『마니카뵈』에서는 육자진언의 염송에 의해 오지(五智)인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 대원경지(大圓鏡智), 평등성지(平等成智), 묘관찰지(妙觀察智), 성소작지(成所作智)가 성취된다고 한다.¹²⁵⁾ 즉 육자대명왕진언은 밀교에서의 오불과 대승 보살도인 육바라밀 그리고 부처의 지혜라는 불교의 중요한 상징과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이제 대순진리회 주문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태을주를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주님께서 23세시에 득도하심이 태을주로 본령합리(本領合理)를 이뤘다하신 도전님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상제님의 대순진리에 감오득도하신 도주님과 태을주 23자 간에 합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한다. 육자대명왕진언에서 각 글자가 부처를 상징하듯 태을주 23자가 곧 도주님께서 하시는 일 또는 도주님을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적어도 태을주 23자는 도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태을주 23자는 상제님의 유지를 받들어 50년 공부 종필로써 도법을 짜신 옥황상제님이신 도주님과 밀접한 상관관계는 있게 되어 그 상징과 의미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주문을 순서대로 볼 때 태을주 다음으로 나오는 주문은 기도주이다. 이 기도주는 도주님께서 신인으로부터 받으신 주문이다. 『대순지침』과 『전경』에는 기도주에 대한 특별한 해석이나 말씀은 없다. 하지만 태을주와 더불어 기도, 시학공부에서 중요한 주문으로 사용된다. 기도주 다음으로 나오는 주문은 진법주(眞法呪)이다. 이 진법주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제님께서 지으신 주문이며 대순진리회의 영대(靈臺)에 모셔진 15신위(神位)의 명호(名號)를 담고 있는 중요한 주문이다. 이 15신위의 신격은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대상인 구천상제님과 옥황상제님 그리고 서가여래, 명부시왕, 오악산왕, 사해용

125) *Mani bkah hbum*, vol.2, p.5. 김부생, 앞의 논문, p.19. 재인용.

왕, 사시도왕, 관성제군, 칠성대제, 직선조, 외선조, 칠성사자, 우직사자, 좌직사자, 명부사자이다. 진법주의 이 신격이 그대로 영대에 모셔져 있다. 대순진리회 수도인들은 영대를 우주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자 우주의 본체 또는 중심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영대에 모셔진 15신위를 담고 있는 진법주를 암송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영대의 대신명을 모시는 것을 상징하게 된다. 진법주를 봉송하는 공부를 법을 모신다는 의미인 시법(侍法)공부라 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진법주 다음의 주문은 칠성주이다. 칠성주는 사람의 생명과 복록을 관장한다고 여겨지는 북두칠성과 관련된 주문으로 이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은 고래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다. 이 칠성주는 ‘북두주(北斗呪)’라는 명칭으로 기존에 원래 있었던 주문이다. 북두주는 도교 경전인 『태상현령북두본명연생진경(太上玄靈北斗本命延生眞經)』의 중간 즈음에 실려 있다. 한국불교에서는 이 북두주를 칠성경이라고 하여 인간의 수명·자녀 생산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북두칠성에게 청하는 칠성칭(七星請) 의식에 사용되었다. 상제님께서도 칠성경의 ‘문곡(文曲)’의 위치를 바꾸셨으며 이 바뀐 주문은 현재 대순진리회의 칠성주이다.¹²⁶⁾ 그 다음은 운장주이며 이 주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나 해석은 없다. 이십팔수주는 28수 별자리에 대한 주문이며 이십사절주는 1년 24절후의 주문이다. 도통주, 신장주, 해마주, 신성주에 대해서도 특별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대순진리회의 주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느님이신 구천상제님 아래 대신명들의 존호(尊號) 및 불교[서가여래]와 도교[신장주¹²⁷⁾의 여러 신장]의 중요 신격 그리고 북두칠성·이십팔수·이십사절후 등의 동양의 중요한 종교 상징을 포함하고 있다. 주문에 나타난 이러한 특징은 상제님께서 하신 천지공사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상제

126)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113 (2010), pp.88-111. 참조.

127) 天上玉京天尊神將 天上玉京太乙神將 上下變局雷聲霹靂將軍 白馬元帥大將軍 雷聲辟惡將軍 惡鬼雜鬼禁亂將軍 三符三界都元帥 地神霹靂大將軍 天地造化風雲神將 六丁六甲遁甲神將 太極斗破八門神將 陰陽五行造化神將 三台七星諸大神將 二十八宿諸位神將 二十四節諸大神將 感我微誠 助我大力 力拔山 吾奉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 勅速勅速 唵 急急 如律令 娑婆阿

님께서선 선·불·유의 법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¹²⁸⁾고 말씀하셨으며,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¹²⁹⁾고 하셨다. 또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다.”¹³⁰⁾고 하셨으며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샐틈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¹³¹⁾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대순진리회 수도인들은 상제님께서 펼치신 대순진리에는 유·불·선과 각 민족 문화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신앙한다. 주문이라는 것이 중요한 종교 상징이며 해당 종교의 교리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대순진리회의 주문에 유·불·선과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살펴보면 유교와 관련된 신격[상제]과 불교나 도교와 개연성이 있는 신격이 나타나 있다.

결론적으로 선불교 중심의 한국불교에서 진언다라니는 불가해성과 주력이 강조되며 도구적 기능으로 활용이 되나 육자대명왕진언의 경우는 밀교 종단인 진각종에서 그 상징과 의미를 재발견하여 종교적 신행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 상징과 의미는 불교 내의 밀교적 세계를 범주로 둔다. 반면 대순진리회의 주문은 유·불·선 등의 모든 법을 합하여 쓰신다는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따라 불교적 세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천지공사와 대순진리회의 종교 사상을 담지하고 있다. 즉 불교 진언과 대순진리회의 주문은 각기 다른 교리적·사상적 배경과 상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수행 원리와 목적의 차이

128) 『전경』, 예시 73절.

129) 같은 책, 교운 1장 41절.

130) 같은 책, 교법 3장 23절.

131) 같은 책, 예시 12절.

한국 불교 진언과 대순진리회 주문은 각각이 담지 하는 상징과 의미가 다름을 살펴보았다. 다라니 수행과 대순진리회의 주문 수행은 모두 일정한 장소에서 한글로 된 주문을 염송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 수행의 원리는 서로 다르다. 수행을 신앙의 실천적 행위라고 폭넓게 볼 때, 수행은 일상적인 의례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주문을 염송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의례에 관한 저서를 집필한 정각(正覺)은 불교의례를 ‘승가에서 실행되는 법식 및 예식 등의 의식을 포함한 위의를 위법 등의 총체적 집합체’¹³²⁾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그는 불교의례의 목적에 대해 “공덕을 통한 현세구복 내지 업의 청정을 통한 정도왕생의 회구적 측면으로서 예경 및 반승의 의미를 넘어선 채, 적합한 규범[戒]의 실행과 우리 자신의 길들임[律]을 통해 신·구·의 삼업의 허망한 열정을 가라앉힘으로서 바라제목차 또는 해탈을 추구한다는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에 그 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는 바, 그럼에도 신·구·의 삼밀의 가치를 통한 현세해탈, 즉 즉신성불에로의 추구 가운데 그 참다운 목적이 존재한다.”¹³³⁾고 하였다. 곧 불교의례는 공덕을 구하는 예경의 의미, 자기 수행의 의미, 밀교적인 즉신성불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불교의 의례에는 많은 진언이 사용되고 있으며, 진언이 의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천수경』 의식절차의 경우, 개설단(開設壇)·계청발원단(啓請發願壇)·수행작법단(修行作法壇)·회향단(廻向壇)의 과정에서 회향단을 제외한 나머지 단에서 진언이 의식실행에 활용되고 있다. 이 진언들은 정화, 호신(護身), 참회, 소청(所請), 위무 등을 위한 뜻으로 활용되고 있다.¹³⁴⁾ 즉 진언이 주변공간을 정화하고 자신을 참회하며 불보살에게 청원을 하는 등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에는 다양한 의례가 있으며 그 의례마다 실행되는 진언이 다르지만, 대순진리회의 경우 입도의례, 치성의례, 기도,

132) 정각, 앞의 책, p.27.

133) 같은 책, p.25.

134) 허일범, 앞의 글, p.295.

수련, 공부에 쓰이는 주문이 같다. 입도의례와 치성의례의 경우 주문봉송이 의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 기능도 불교의 진언과 유사하다. 기도·수련·공부의 경우에는 주문 송독 자체가 의례가 된다.

이렇게 의례에 있어서 진언과 주문은 의례의 한 과정으로서 종교 의식을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그 수행의 원리는 각각 다른 점을 보인다. 먼저 선불교 전통에서는 김호성의 지적처럼 다라니는 화두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즉 분별 의식을 버리고 정신과 마음을 통일시키는 기능을 하며 이는 선수행의 원리적 설명과 같은 맥락이다. 천수다라니가 불가해성의 특징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형식은 관세음보살에게 청원하는 형태이다. 즉 천수다라니 수행을 통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에 의지하여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며 관세음보살이 지닌 지혜와 자비의 힘을 습득하려는 것이다. 반면 육자진언의 염송 수행은 여섯 글자의 의미를 생각하는 관법(觀法)을 취하며 자신의 신체의 부위에 이 여섯 글자를 안치하는 포자(布字)를 하고 금강지권(金剛智拳) 또는 금강권(金剛拳)을 수인을 맺는 법을 취한다. 특히 관법 시에는 여섯 글자 각각의 글자가 여섯 부처, 육바라밀(六波羅蜜), 육도(六道), 육식(六識)과 대응된다고 생각하여 염송할 때도 이 관법을 지속한다. 그리고 사종염송(四種念誦)이라 4가지 염송방법을 제시한다. 사종염송에는 소리를 크게 내어 외연의 경계를 차단하고 마음을 염송소리에 모으는 항마(降魔)염송, 마음을 정리하며 염송소리를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하는 연화(蓮花)염송, 소리를 내지 않고 혀로써 염송하는 금강(金剛)염송, 혀를 멈추고 마음으로 외우는 삼마지(三摩地)염송이 있다.

불교의 대표적인 두 진언인 천수다라니와 육자진언의 수행 원리가 이처럼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 근본 목적은 성불(成佛)에 있다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불교의 진언다라니는 불교라는 종교의 사상적 범주 내에서 그 근본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주문 수행의 원리는 불교와는 다른 이론적 배경을 지닌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전경』의 말씀에 기초한다.

사람마다 그 닭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가느니라.¹³⁵⁾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썰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¹³⁶⁾

이 말씀은 즉 상제님께서 권능으로써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몸에 드러나게 하여 사람을 고쳐 쓴다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특히 기도나 수련 시에 주문을 암송함으로써 일어나게 된다. 수행자는 평소에 신명의 호위를 받으며, 특히 주문을 암송할 때 신명들이 수행자에 응감(應感)하여 몸속을 드러들면서 사람의 모나고 잘못된 기질들을 고친다고 한다. 대순진리회의 주문의 주요 부분이 신명의 명호(名號)인 점도 이런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수도인들은 기도와 수련을 꾸준히 봉행함으로써 체질과 성격을 바꾸고 신명과 조화를 이루며 상제님을 영시(永侍)할 수 있는 심신으로 변화시켜나가는 것이다. 즉 대순진리회의 종지 중 하나인 신인조화(神人調化)가 주문 봉송을 포함한 여러 수행의 양태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에서 수도의 목적은 도통¹³⁷⁾이므로 주문 봉송도 목적인 도통과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기도와 수련 시 수도인들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사이에 끼우고 앉으며 손은 오른손이 왼손 위로 가게 포개어 하단전에 대는 ‘법좌(法座)’ 자세를 취한다. 법좌 상태에서 눈은 감은 채로 주문을 송독한다. 불교의 관법처럼 주문의 의미를 생각하라고는 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의 주성 소리에 맞추어 송독해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도 의식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의미를 중요하게 여

135) 『전경』, 교법 2장 17절.

136) 『전경』, 교법 3장 4절.

137) 『대순지침』, p.37.

긴다. 즉 대순진리회의 주문 실행의 시간과 그 이치가 역학의 음양오행설을 기초로 한 상제님의 후천개벽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대순진리회에는 주문 수행의 차원을 넘어 이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주문 공부 즉 시학·시법 공부를 행하고 있다. 또한 공부의 인적구성, 시간, 절차, 송독하는 주문 등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주문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가 고도로 체계화되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주문 수행을 방편으로 삼는 선불교의 다라니 수행과는 차별되는 점이다. 또한 이 공부는 개인적 수행의 완성을 넘어서 우주적 차원에서의 지상 낙원과 선경의 실현과 관련이 있다. 즉 공부의 근본 목적은 대순진리회의 목적과 상통한다.

V. 결론

한국의 신흥교단인 대순진리회는 의례를 행하고 수행을 하는데 주문을 그 핵심으로 한다. 소정의 주문을 봉송함으로써 대순진리회 수도자들은 신앙의 대상인 상제와 영적으로 직접 교감을 하게 되며 세속의 현실과는 차별된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주문을 봉송하는 것이 신흥교단인 대순진리회만의 독특한 특성은 아니다. 한국불교에서도 의례와 수행에서 각종 진언과 다라니가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봄으로써 대순진리회 주문의 특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한국불교의 진언다라니는 인도에서 기원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해 들어왔으며, 오랜 세월을 지속하여 현재까지 지송되고 있는 살아 있는 신앙의 양태이다. 현재에도 각종 불교의 의례뿐만 아니라 가람의 일상생활에서도 진언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몇몇의 주문은 그 증험과 효험을 찬탄하는 경전의 기록과 대중들의 경험담을 담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많은 수행자들과 신앙인들은 화를 면하고 복을 기원하는 현실적인 기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불을 염원하면서 주문을

염송하였으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내의 몇 밀교 종단은 진언을 중심으로 한 교리체계를 세워 창종을 하였고 상당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대상이신 상제님께서서는 천지공사를 행하시면서 기존의 여러 주문을 사용하셨으며 몇몇 주문은 당신께서 직접 만들어 종도들에게 가르치시고 염송하게 하셨다. 상제님께서서는 천지공사의 한 방편으로 주문을 사용하셨으며 특히 태을주의 염송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다.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한 조정산 도주께서는 종통의 계승 과정에서 주문을 받으셨다. 도주님께서서는 태을주와 분령합리를 이루셨는데 이처럼 도주님의 정통성에 성립에 있어서 주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주님께서서는 신앙체계와 의례를 정립하셨으며 이 과정에서 주송할 주문과 송주 방법을 정하셨다. 도주님께서 세운 신앙과 의례를 진법(眞法)이라고 하며 이 진법을 박한경 도전님께서 계승하시어 대순진리회가 창설된 것이다.

불교의 진언다라니와 대순진리회의 주문이 음성학적으로는 모두 한글 발음의 발성이라는 점과 의미를 알 수 없는 불가해한 언어라는 점은 공통된다. 즉 주문의 의미보다는 주문이 가지고 있는 효력과 공능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불가해하다고 상징과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도의 상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언어로는 그 뜻을 규정하거나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미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선불교 전통에서 활용되는 진언다라니는 불가해성이 강조되지만 밀교 종단인 진각종에서 활용되는 육자진언은 교리적 의미가 분명히 부가되어 있다. 육자진언은 오불, 육바라밀과 사지(四智)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진언다라니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면 육자대명왕진언은 밀교의 즉신성불의 사상, 천수다라니는 관세음보살 신앙을 배경으로 한다.

대순진리회의 주문 중 태을주는 도주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진법주는 영대 15신위의 존호를 담고 있으며 시법공부에서 암송되는 주문이다. 대순진리회의 주문을 살펴보면 불교와 도교에서 유래된 것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유·불·선의 법을 합하여 쓰신다는 상제님의 천지공사와 관련하여 고찰해 보았다. 대순진리회의 주문에는 상제님의 천지공사와 대순하신 진리 그리고 유·불·선과 그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징과 의미에서 진언은 불교의 종교적 세계를 대순진리회의 주문은 대순사상을 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진언과 대순진리회의 주문은 수행의 원리와 그 목적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선불교 전통에서 진언은 불가해성을 특징으로 한 도구의 기능으로 활용되지만, 육자진언은 진언의 의미를 생각하는 관법을 수행 원리로 한다. 대순진리회의 주문 수행은 신명이 사람의 몸에 드러나며 사람을 고친다는 원리를 기초로 한다. 주문 송독 시 자세도 다르며 그 수행 시간도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설명 체계를 기초로 한다. 또한 주문 수행을 더욱 정교화 한 시학·시법공부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각 주문들은 해당 교단의 교리나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교리 양산의 주체가 아닌 실제로 주문을 암송하는 일반 신앙인까지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앙인들은 주문이 지닌 상징과 의미보다는 송주를 통한 치병, 양재초복 등의 실제적인 이득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불교와 대순진리회라는 종교의 벽을 넘어서지는 않는다. 즉 대순진리회 신앙인이 불교 진언을 암송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하였으며, 반대로 불교 신자가 대순진리회의 주문을 암송하는 사례도 들어보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불교와 대순진리회에서 송주를 통한 현세적인 이익의 성취라는 측면의 양태는 같지만 궁극적인 수행의 목적과 상징과 그리고 의미는 서로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 실재와 소통 또는 합일하는데 주문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점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곧 주문은 종교적 인간이 성스러움과 만나고 합일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수단이며 많은 상징과 의미를 담지하는 신비스런 말인 것이다.

【참고문헌】

『전경』

『대순지침』

『대순진리회요람』

『대순성적도해요람』

『포덕교화기본원리』

『훈시』, 대순진리회 내부 자료

『대정장』

『삼국유사』

『고종실록』 권1

Mani bkah hbum

김무생, 「육자진언의 상징의미」, 『밀교학보』 창간호, 2000.

_____, 『회당사상과 진각밀교』, 경주: 위덕대학교 출판부, 2002.

김영덕, 「육자대명왕진언·천수다라니 수행과 깨달음—용성선사의 진언 지송을 중심으로」, 『대각사상』 12, 2009.

김탁, 『증산교학』, 서울: 미래향문화, 1992.

남희숙, 「조선후기 불서간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대순종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2003.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113, 2010.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진언·다라니 수행 입문』, 서울: 조계종출판사, 2008.

동경대전 포덕문, 『동학사상자료집』 1,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유사종교』, 최길성·장성언 공역,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 서울: 운주사, 2006.

용성, 「『천수경』서」, 『용성대종사전집』 6, 1936.

유병덕, 『한국민중종교사상론』, 서울: 시인사, 1985.

- 이강오, 「한국의 신흥종교 자료편 제1부」, 『전북대학교 사대논문집』 7, 1966.
- 이경택, 「진각종 교학의 형성과정 연구」, 위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전재성, 『천수다라니와 붓다의 가르침』,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3.
- 정각, 『한국의 불교의례-상용의례를 중심으로』, 서울: 운주사, 2001.
- 정태혁, 『정통밀교』, 서울: 경서원, 1983.
- _____, 『요가수트라』, 서울: 동문선, 2000.
- 종석, 『밀교학 개론』, 서울: 운주사, 2000.
- 차차석,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불교계 종단의 분과활동과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8, 2012.
-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라시』, 서울: 민속원, 2009.
- 한동석, 『우주 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 허일범, 「한국밀교 진언수행의 역사적 변천과 현대적 활용」, 『회당학보』 17, 2012.
- _____, 「한국의 진언·다라니 신앙 연구-육자진언과 천수다라니를 중심으로」, 『회당학보』 6, 2001.
- 홍범초, 『범증산교사』, 서울: 한누리, 1988.
- 황현, 『오하기문(梧下紀聞)』, 김종익 옮김, 서울: 역사비평사, 199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Kimberly C. Patton and Benjamin C. Ray(eds.), *A Magic Still Dwells: Comparative Religion in the Postmodern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 Smith, Jonathan Zittel, *Drudgery Divine: On the Comparisons of Early Christianities and the Religions of Late Antiqu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 Smith, Jonathan Zittel, *Relating Religion: Essays in the Study of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 Staal, Frits. "The meaninglessness of Ritual." *Numen* 26. no. 1, 1975.
- Sørensen, Henrik Hjort, "Esoteric Buddhism Under the Chosŏn." *Esoteric Buddhism and the Tantras in East Asia*, Leiden; Boston: Brill, 2011.
- Tsong Ka Pa, *Tantra In Tibet*,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7.

▪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Mantra of Korean Buddhism and the Jumun of Daesoonjinrihoe

Park In-gyu

Division of Cultural Affairs, Daesoonjinrihoe

In this paper, I want to compare the mantra of Korean Buddhism with the jumun(呪文) of Daesoonjinrihoe in rites and cultivation. Regarding the mantra of Buddhism there are some researches, but there are few studies with regard to the jumun of Daesoonjinrihoe. The mantra of Buddhism and jumun of Daesoonjinrihoe look similar in pronouncing Hangul characters, but the religious and historical context around these seems to be different.

The mantra of Korean Buddhism i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and diffusion process of esoteric Buddhism. In the early period of Buddhism some mantras were allowed by Buddha and the mantras were certified as a educational teaching in the period of Early Buddhist schools. In Mahayana school, the dharani that was abstracted from the vast Mahayana scriptures was developed. As Mahayana Buddhism develops, esoteric Buddhism was born in India. Esoteric Buddhism was introduced into China and was imported into Korea in Silla dynasty. In Koryo dynasty various rituals of esoteric Buddhism flourished and Jineunjong

(眞言宗) and Chongjijong(總持宗) school were formed. In Chosun dynasty Buddhism was suppressed by government and the esoteric school was discontinued. But in rituals and cultivation the mantra and dharani were flourished in the latter part of Chosun dynasty. In modern period several esoteric schools were formed and developed. In present context the mantra was recited by many people in Korea. Main mantras are 'Om mani padme hum', 'Dharani of Avalokitesvara(神妙章句大陀羅尼)', 'neungumju(楞嚴呪)', 'Gwangmyung mantra(光明眞言) etc.

The jumun of Daesoonjinrihoe was started by Kang Jeungsan(姜瓚山) who was believed to be a God by Daesoonjinrihoe believers. Jeungsan used several existed mantras in creating new heaven and earth and made new jumuns by himself and taught them to his followers. Cho Jungsan(趙鼎山) who succeeded to the doctrines has received the jumuns by Jeungsan. He selected the jumuns to recite and determined the method how to spell these. Park Hankyung(朴漢慶) who opened Daesoonjinrihoe succeeded the rituals and doctrines. Every day ritual of Daesoonjinrihoe is chanting the jumun and the cultivation and gongbu(工夫) is practiced through jumun. Important jumuns of Daesoonjinrihoe are Taelju(太乙呪) and Kidoju(祈禱呪).

In the aspects of ritual, the mantra of Buddhism and the jumun of Daesoonjinrihoe perform a similar function. The mantra of Buddhism has the context of the doctrines of Buddhism and the method of Buddhist practicing but the jumun of Daesoonjinrihoe is related to Jeungsan's teaching and the doctrines of Daesoonjinrihoe. But it is same that the mantra and jumun are used in communicating or uniting with ultimate reality. So the mantra and jumun are important vehicles for homo religius to meet the sacred and

unite with the sacred and is regarded as the sacred word by the faithful which has a lot of symbols and meanings.

Key words : Daesoonjinrihoe, Korean Buddhism, esoteric Buddhism, mantra, dharani, jumun(呪文), Kang Jeungsan, Cho Jungsan, Park Hankyung, Taelju(太乙呪)

◎ 투 고 일 : 2013년 8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3년 10월 16일~29일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3월 9일